
유현주 수능 국어

2019-6월 모의평가

‘문법’ 손글씨 분석지



유현주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어교육학 교직이수(중등학교 정교사 2급)
(前) 스카이에듀 월간 김봉소 온라인 전담강사
(現) 메가스터디 대치, 분당 러셀학원 국어영역 강사
(現) 대치 시대인재 재수종합반 국어영역 강사
(現) 대치 이감국어교육센터 국어영역 강사
(現) 강남 오르비학원 국어영역 강사
(前) 비상에듀 온라인 강사
(前) 대성 마이맥 온라인 국어영역 강사
(前) 강남 대성학원 재수종합반 강사
(前) 안산동산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 국어영역 특강 강사
(前) 경기외국어고등학교(GAFL) 국어영역 특강 강사
(前) 서울 종로학원(본원) 단과 강사
(前) 종로 모의고사 출제 위원

국어 영역

2019 - 6월 - 문법

	명사 파생접미사	명사형 전성어미
현대 문법	-(으)ㄴ	
	① 서술어로 활용 가능 여부	
	× (서술격조사 결합시 제외)	○ (문장, 절에서 쓰임)
	② 수식어의 차이	
	관형어	부사어
중세 문법	-(으/으)ㄴ	
	모음조화 반영 여부	
	○ ⊕-으 / ⊖-으	○ ⊕-음 / ⊖-음

	명사 파생접미사	부사 파생접미사
현대 문법	- 이	
	① 격조사와 결합여부	
	○	×
	② 수식어의 차이	
	관형어	다른 부사어 or 서술어
중세 문법	- 이 / 의	
	모음조화 반영 여부	
	○ ⊕ - 이 / ⊖ - 의	× (-이만 존재)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②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③ 한편 이들 ‘-(으)ㄴ’과 ‘-이’가 중세 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ㄴ’은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한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건-’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으)ㄴ’과 ‘-음’이 각각 결합한다.

④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뭇 노피(나무의 높이)’와 ‘노피 는는 저비(높이 나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한 여름 여름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명사파생접미사 명사형 전성어미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 걸+음 → 걸+음
- ③ ‘거름’과 ‘노피’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
- ④ ‘노피’와 ‘노피’의 형태를 보니, ‘노피’는 파생 부사이고 ‘노피’는 파생 명사이겠군. → 높+의: 명사파생접미사. → 높+이: 부사파생접미사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곧다’, ‘곧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부사 X**

국어 영역

2019 - 6월 - 문법

1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 ① [많이 앞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명사형 어미
- ②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명사파생 접사
- ③ [멸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명사파생 접사
- ④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명사형 어미
- ⑤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명사파생 접사
- ⑥ [무용수들이 군무를 출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명사형 어미
- ⑦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명사형 어미
- ⑧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명사형 어미
- ⑨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명사파생 접사
- ⑩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명사형 어미

13.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횡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사잇의 경우와 달리)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합성어'에 한정! 즉)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간+간=X)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첨가)
 -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첨가)
 -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교체)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까격]	도맷값[도매갑] ← 간+고
㉡	전세방[전세빵]	아랫방[아래빵] ← 고+간
㉢	버섯국[버섯꾹]	조갯국[조개꾹] ← 조개+꾹
㉣	인사말[인사말]	존댓말[존덴말] ← ㉠ → ㉣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 →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탐구 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 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굽는	[글른]	[궁는]
㉡ 짬네	[짬네]	[짤네]
㉢ 끊기고	[끈기고]	[끈키고]
㉣ 뜯지	[뜯찌]	[뜯치]

○ 탐구 내용 [글른] [짬네] [끈기고] [뜯지]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만 일어난 발음이다.

① 유음화 비음화 거센소리되기
 ② 유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③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④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⑤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15.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지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 ①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더라?
- ④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라?
- ⑤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